2024. 7. 23.(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7월 22일 14:3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

사진 없음 □ 사진 있음 ■ 쪽수: 4쪽

양성평등담당관	하동준	02-2133-5320
안심보호팀장	오부자	02-2133-5342

'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' 서울에 개소, 전국 최초

- 7월 22일 서울여성플라지에 첫 개소 법률심리복지고용금융 등 피해자 지원 한 곳에서
- 서울시. 법무부와 협력하여 센터 공간 미련부터 복지서비스 제공 등 피해자 지원까지
- 디지털성범죄, 스토킹 피해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피해자 지원기관과 시너지 기대
- "범죄로 인한 다층적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의 빠른 치유와 일상 회복 위해 최선 다할 것"
- □ 신체적·정신적·경제적 등 다층적 피해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경제, 법률, 심리, 복지, 금융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'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'가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 문을 열었다.
 - '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'는 법무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'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' 구축의 일환으로 설치되었으며,
 - 서울시는 지난 11월 법무부와 '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'설치·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, 센터 공간 마련부터 참여기관 선정·유치 등 센터 설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.
- □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 14개 참여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2일(월) 14:30

서울여성플라자 2층 다목적 라운지에서 개소식이 개최됐다.

- 검찰, 경찰, 고용노동부 고용센터, 대한법률구조공단, 범죄피해자지원센터, 법률홈닥터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, 서울시 복지지원팀,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, 서울스토킹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, 서울일자리센터, 스마일 센터, 진술조력인,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14개 기관이 참여했다.
- □ 이를 통해 피해자 지원관점에서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범죄유형에 대해 신변보호·수사협력·심리·법률·고용·복지·금융 지원 및 의료 연계 등 전 과정을 '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'에서 통합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.
 - 기존에는 범죄유형별로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, 심리상담, 법률지원, 일자리 지원 등 일상회복의 과정이 제한적으로 지원되어 왔다.
 - 최근 범죄의 양상이 디지털성범죄, 스토킹, 가정폭력, 성폭력 등 중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통합 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,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기존에는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피해자들의 수고와 불편을 덜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□ 서울시는 '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'에 사회복지 공무원을 전담 배치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,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, 서울스토킹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도 피해 지원기관으로 참여한다.
- □ 생명·신체에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, 디지털성범죄·스토킹범죄 피해자 등 모든 유형의 범죄피해자가 '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'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으며, 범죄피해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센터에 직접 방문

하면 되고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다.

- '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'는 서울여성플라자 3층(대방역 3번 출구)에 위치하고 있으며, 문의는 1577-1701로 하면 된다.
- □ 오세훈 서울시장은 "서울시는 스토킹범죄, 디지털성범죄 등 진화하고 다양해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왔고,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"며 "앞으로도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과 힘을 합쳐 범죄 피해자들이 좀 더 빨리 치유되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고, 시민이 안전한 서울을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"고 말했다.

